

# 중국 AI 발전 현황 및 시사점

김 서(중국리서치팀, jinrui@kdb.co.kr)

- ◆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AI 기술 응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, 대기업 주도로 자율주행, 스마트의료 등 첨단 분야 AI 기술 투자 급증
- ◆ 중국 AI 발전에는 정부의 지원과 신성장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투자가 큰 역할을 한 바 한국도 AI분야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맞춤형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필요

## □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보안, 금융 등 분야에서 AI 기술 응용 가속화

- '17년 중국정부는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AI 발전 3단계 목표 제시
  - '20년 AI 기술응용 선진국(연관산업 매출액 1,500억 위안)→'25년 AI 기초이론 및 기술 선도국가(연관산업 매출액 4,000억 위안)→'30년 글로벌 AI 혁신 강국(연관산업 매출액 1조 위안, 생산유발효과 10조 위안)

\* 중국 국무원('17.7월) "차세대 AI 발전 계획 관련 통지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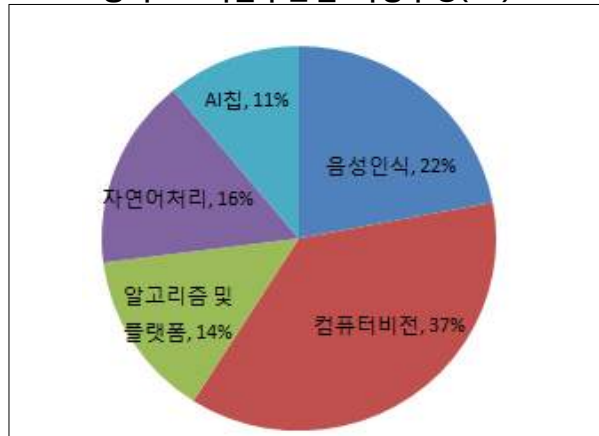
- 정책추진에 힘입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컴퓨터비전 등 AI 기술 응용 가속화
  - 중국정부는 공공안전 프로젝트 추진 일환으로 전국 범위에 컴퓨터비전 기술을 적용한 영상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알리바바, 화웨이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 시티 건설 추진
  - 금융 분야 AI 응용(AI 리스크관리, 로보어드바이저 등)도 증가하고 있는데 AI 알고리즘 업체 4Paradigm은 5대 국유은행으로부터 공동 투자 유치
  - '18년 중국 AI 시장규모(매출기준)는 약 339억 위안, 그 중 컴퓨터비전 및 음성인식 기술 시장 규모가 전체 AI 시장의 59% 차지

중국 AI 시장규모 추이('16~'20E)



자료 : 중국정보통신연구원('18.2월)

중국 AI 기술부문별 시장구성('17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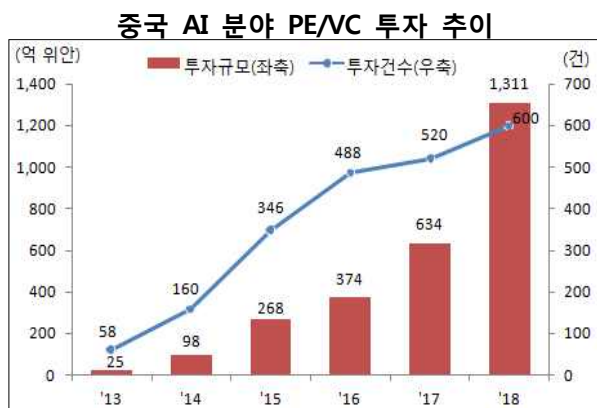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국정보통신연구원('18.2월)

□ 중국정부는 바이두, 텐센트 등 대기업을 AI 혁신플랫폼으로 선정하여 자율주행, 스마트의료 등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추진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유도

- 바이두는 스마트카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 전략인 'All-in-AI'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 Apollo, 음성인식시스템 DuerOS, 클라우드 AI칩 쿤룬 등 개발
- 텐센트는 의료와 AI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'16년 iCarbonX, VoxelCloud 등 AI 의료업체에 투자하였고, 화웨이는 AI칩 설계업체 Cambricon과 협력하여 '17년 글로벌 최초로 NPU(신경망 연산전용 프로세서)를 탑재한 Kirin970 개발
- '18.1~9월 바이두, 텐센트, 알리바바, 엔트파이낸셜의 AI 투자는 128억 달러로 미국 경쟁업체 알파벳(구글), 아마존, 애플, 페이스북의 투자 합계(17억 달러)를 크게 초과(Pitchbook, '18.10월)

□ 정부지원과 대기업을 AI 기술투자 급증 등에 힘입어 '17년 중국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미국을 추월

- '17년 전세계 AI 스타트업에 투자된 152억 달러 중에서 중국은 48%를 차지하며 미국(38%)을 추월(CB Insights, '18.2월)
- '15년 이후 중국 AI 분야 PE/VC 투자규모는 연평균 70%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21개의 유니콘 기업 배출(중국 과학기술부, '17년 기준)



**중국 AI 분야 대표 유니콘 기업**

기술 분야	업체	기업가치(억달러)
컴퓨터비전	SenseTime	60
	Face++	30
음성인식	Unisound	10
AI칩	Cambricon	25
	Horizon.ai	40
알고리즘	4Paradigm	12
	DeepBlue	33
로봇	UBtech	50
자율주행	Pony.ai	10
의료	iCarbonX	10

자료 : 언론보도자료 정리

□ 중국 AI 발전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성장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가 큰 역할 발휘

- 한국은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한국기업의 혁신기반과 높은 자동화 생산성에 입각한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 및 추진 필요